



전주매일

“국가균형발전의 선두에 전북이 서겠다”

김관영 도지사, 민선8기 3년 맞아 향후 청사진 제시

올림픽 유치·교통혁명·완주전주 통합 등 ‘핵심과제’
투자유치, 농생명·문화산업 육성 등은 지속발전 전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3주년을 맞아 “잃어버린 3년을 끝내고 진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선두에 전북이 서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6면>
김 지사는 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열했던 지난 3년이 오늘의 전북을 만들었다”며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도전정성(挑戰精神)의 정신으로 일궈낸 변화가 이제 현실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전북이 이룬 가장 큰 성과로는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 선정 꼽았다. 49대 11의 압도적 표차로 선정된 이 결과를 김 지사는 “전북의 역량을 전 국민에게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북특별법 제정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도 133일 만에 입법 신기록을 세우며 성사됐다. 김 지사는 “어느 특별 자치단체보다 빠르게 성장 기회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투자 유치 성과도 눈에 띈다. 삼성, 엘에스, 두산 등 대기업 계열사 7곳을 포함한 198개 기업으로부터 16조 5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1공무원 1기업 전담 제도’와 ‘환경오염 단속 사전 예약제’ 등 전북만의 혁신적 행정 시스템이 기업들의 호응을 얻은 결과다.

28년 만에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을 성사시킨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김 지사는 “사통팔달 전북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남은 1년을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전북을 기회의 땅으로 바꿔낼 원년으로 삼겠다”며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김 지사는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화합과 재도약을 일리는 신호탄이자 전북이 세계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서울 올림픽 당시처럼 온 국민과 함께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특별법 제정, 법무부 차원의 유치위원회 출범, IOC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전북 발 교통혁명이다.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전주권의 공간 구조를 혁신하고 산업, 주거, 문화, 일상이 하나로 이어지는 광역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나해 통과시킨 대광법이 그 길을 열었다”며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이다. “전주 하계올림픽은 도시 이름으로 치러지며, 국제사회는 도시의 규모와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며 “완주 전주 통합으로 올림픽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진행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전북의 지속적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도청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도 발표했다. 투자 유치 목표를 16조원에서 2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새만금에는 올해 국제공항 착공, 내년 신항 개항을 목표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한다.

농생명 산업과 문화 산업을 양대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반도체, 첨단 바이오, AI 등 신산업 생태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과 가족친화 정책도 강화해 ‘아기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제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가능성이 가장 먼저 피어나는 땅, 국가 균형 발전의 미래를 여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3년 전 취임사를 언급하며 “일에서만큼은 성과를 내는 도지사, 도민들을 최고로 섬기면서 한없이 겸손한 도지사가 되겠다”며 “오직 도민만을, 그리고 오직 전북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의 재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도지사는 도정 발전을 위해 주위에서 나서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도민도 많이 있으나 현재는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도정에 임하겠다고 하며 재선 출마 여부를 속 시원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김관영 지사의 지난 3년간의 도정 운영 성과와 남은 1년간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도정 운영이 전북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사회적경제
광역지자체 ‘최우수’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서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혁신타운·유통지원센터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위기 속에서도 성장한 전북 사회적경제가 광역지자체 부문 전국 최고로 인정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서울과 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앞장선 전국 자치단체 중 우수 사례를 발굴·포상하는 자리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역 일자리창출 및 판로지원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지원체계 수립 및 우수사례 발굴 △사회적가치 지표(SVI) 참여실적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평가하며,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도 부문 최우수, 경북도가 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정부 보조금 중 단위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체 예산을 적극 편성·확대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마련에 주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조성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성장, 판로, 협업을 아우르는 통합 거점 공간으로 주목받았으며, 올해 완공한 ‘전북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제품 유통과 기업 간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체계화,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도입,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에서 두루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전국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회적경제 정책의 내실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와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은 정책 모델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1926년 창립돼 세계적인 소재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도레이그룹의 혁신 DNA와 현장주의 리더십을 전북 발전에 접목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만호)은 1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한국도레이그룹의 성장과 경영자의 리더십’을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33강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3면>

강사로 나선 이영관 이사장(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前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은 1926년 창립된 도레이그룹이 세계적인 소재기업으로 성장해온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도레이는 ‘소재에는 세상을

“도레이그룹의 성장 비결, 끊임없는 혁신”

전북 백년포럼... 이영관 전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초청 강연

1962년 창립 후 세계적인 소재기업으로 성장해온 과정 소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기업 이념 아래 극한 추구와 50년 간의 집념,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자율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아왔다”며 도레이의 혁신 DNA를 구성하는 요소로 ‘극한’, ‘집념’, ‘혁신과 도전’, ‘자율’을 꼽으며 끊임없는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도레이그룹이 현재 연 매출 약 3조원, 임직원 약 3,900명 규모로 성장했다”고 소개한 그는 성공의 비결로 한일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전략 실행,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사업 포트폴리오 확충, 투명하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꼽았다.

특히 “한국 진출 초기부터 일본 본사와의 유기적 협력 및 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을 전개해온 점이 도레이첨단소재의 고속 성장에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군산에 설립한 PPS 공장을 설명했다.

이 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PPS 수지·컴파운드 생산시설이자 세계 최초로 원료부터 제품까지 일관 생산체제를 갖춘 사업장으로, 전북에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는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도레이그룹의 미래 청사진인 Vision 2030'을 통해 향후 핵심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도 함께 소개했다.

21년간 생산 현장 근무와 25년간 CEO 재직이라는 이력을 가진 이영관 이사장은 현장주의 경영철학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리더십 경험도 공유했다. 그는 “기업 경영자는 주인 정신과 책임감, 빠르고 올바른 판단,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부드러운 리더십, 사회적 책임의 실현 등의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시민이 주인!
더 듣고 더 뛰는 실천의회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